2022 Jan. + Feb. Vol. 06

ALLOTMENT



Cover Story 선진 의료를 향해 강대한 병원의 청사진을 그리는
김철승 예수병원장

Presbyterian Medical Center Magazine **얼랏먼트**

Editor's Pen

2022년 새 달력 첫 장을 넘기며 새해를 위한 다짐을 해봅니다.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2021년을 보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정면으로 맞서 지키고, 꿋꿋이 병원의 성장세를 지켜내며,
'좋아진 예수병원'의 이미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선진 병원을 향해 용맹스러운 호랑이처럼 나아가는 2022년,
우리 모두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웃을 일 많고, 무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새롭게 시작한 얼랏먼트가 여러분께 소소한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LLOTMENT

Presbyterian Medical Center Magazine **얼랏먼트**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김철승

편집인 홍보실장 송승현
기획 학예연구사 남지현 | 홍보실 국하은
사진 작가 김내성 | 홍보실 김찬경

디자인 오케이민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예수병원을 팔로우 하셔서
예수병원의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YouTube Instagram

SPECIAL THEME

04
Intro
강대하고 위대한
선진 의료의 청사진

08
Interview
김철승 예수병원장

12
PMC Talk
2022년 첫걸음 새 마음으로





APPROACH

14
Activity
함양 지리산
때로는 자애롭고,
때로는 잔인한 아름다움

18
칭찬 Challenge

20
History
마티 잉골드
불모지에 심은 숭고한 헌신

22
PMC Member
간호국
간호 현장을 다독이는
든든한 헤드쿼터

26
슬기로운 취미생활
사이클의 매력에 함께 타실래요?





ACCOMPANY

28
Health Story
박에스더
신실한 애정으로
조선을 치료하다

30
Relation
K-유니버스의 문을 열다

32
PMC Rookie
이력은 달라도 매력은 같은
새내기들

34
PMC NEWS

38
Donation

42
진료 일정 안내



선진 의료의 기준을 세우는 **A d v a n c e m e n t** 청사진

124년 역사와 전통을 기초로 우리 병원은 미래형 선진 병원의 청사진을 그리며 변화와 혁신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선진 의료의 이상향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내일의 예수병원을 앞서 경험해 본다.

예수병원이 완성합니다

1

페렴 · 위암 · 정신건강 등 진료 영역별 의료평가 1등급, 환자 경험 평가 1등급 달성과 최첨단 의료 장비 및 의료 환경 마련으로 대한민국 1등 병원으로 발전

BIG 5+1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대표 병원으로 성장함으로써 서울의 BIG 5 대형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BIG 6' 예수병원의 기틀 마련

R&D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의료 신기술 연구 개발과 진료 환경 개선을 통한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변신

LOCAL COMMUNITY

예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의료 봉사를 실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수행

CENTER

선진 의료를 이끌 핵심 의료 센터들의 운영을 본격화하고, 향후 신규 센터 설립에 적극 투자

PATIENT FIRST

환자가 진단과 치료 그 이상의 감동과 교류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고객 친화적인 응대와 진료 시스템 구축으로 '환자 제일주의'의 운영 철학 실천

POST CORONA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달라질 의료 현장을 선도하게 될 원격 의료, 토탈 케어 EMC 등 '포스트 코로나' 의료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

ORGANIZA-TION

체계적이고 진취적인 선진 의료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팀 신설과 조직 재정비





첨단 의료 장비를 대대적으로 도입한 우리 병원은 정밀한 진단과 효율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센터 견립과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수도권 BIG 5 대형 병원과 인프라를 견줄 수 있을 만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병원 환경을 끌어올렸다.

선진 의료의 기초를 다진 철학

세계 전체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2022년은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변이에 대한 불안감이 혼재된 이름으로 다가온다. 우리 병원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확산세와 정면 대결하며 방역 현장을 지켜왔고,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세를 지켜냈다.

의료 분야에서 선진의 의미가 단순히 사전적 정의인 '앞섬'으로 함축되지 않는 까닭이 이것이다. 의료인의 사명감과 철학이 환자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선진 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구상한 선진 병원의 청사진 속에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도면으로 그려져 있다. 즉, '환자 제일주의'야말로 선진 의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운영 철학의 실현을 위해 우리 병원은 '친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애인 친화, 아동 친화, 지역 친화 등의 목표를 세워 병원을 둘러쌓은 사회적 공동체와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는 것. 지난해 12월 우리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선정된 원동력도 이런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124년의 역사가 위대한 예수병원을 탄생시켰다면, 앞으로 다가올 예수병원의 100년은 강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전국권 대형 병원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실을 뚫자면 우리 병원이 나아갈 길은 명확해진다. 이른바 'BIG 5'로 통하는 서울 대형 병원에 견줄 만큼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모의 성장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것. 이제는 지역 거점 병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투 트랙'으로 열리는 변화의 물꼬

지난 1월 3일 본관 4층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김철승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또렷이 제시했다. 바로 '다시 강대하고 위대한 예수병원'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Great again'이 함의한 선진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2022년의 예수병원 로드맵은 투 트랙으로 실행된다. 첫 번째는 기존에 노력해 온 '인프라 개선'이다. 우리 병원은 그동안 전문화된 센터 개소와 병상 확대, 최신 의료 장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뛰어왔다. 낙후 병동 리모델링과 신규 센터 건립 등 시설 확장과 일반 · 음압 병상 추가 확보는 2022년에도 이어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기 도입도 계속된다.

두 번째는 이처럼 탄탄해진 '하드웨어'를 토대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의 강화'다. 신사업 기획과 진료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의료 기술 R&D, 환자 제일주의 철학 강화 등을 통해 '속이 꽉 찬' 선진 병원의 기틀을 잡겠다는 포부다.

또 스마트 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병원정보시스템을 병원 전 영역에 걸쳐 업그레이드한다. 병원 방문부터 진료 예약 등을 환자 동선에 최적화하여 보조하고, 진단 및 치료 정보 등을 전산을 통해 일원화하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진일보가 이루어진다.

우리 병원이 꿈꾸는 선진 의료의 거점, 첨단 스마트 병원의 청사진은 이렇듯 차근차근 완공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 될지도 모를 2022년, 선진 의료가 꿈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 들어오길 기대해 본다.



‘리더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인凡人의 식견을 뛰어넘어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선구안’은 필수 조건이 아닐까. 예수병원의 내일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포부와 통찰을 겸비한 큰 인물이 필요하다. 김철승 병원장은 바로 우리 병원이 원하는 리더의 조건을 달성한 ‘선구자’다.

예수병원을 다시 강대하고 위대하게 도약시키는 **선구자의 의지**

김철승 예수병원장

2022년의 큰 그림을 트레이싱하다

우리 병원은 그동안 여러 신규 센터를 건립하고,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현대화 · 선진화를 달성해 왔다. 124년의 역사에 부끄럼 없는, ‘위대한 예수병원’의 이름을 알린 것이다.

이토록 숨 가쁘게 뛰어온 예수병원 가족들이 2022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어떨까. 새해 첫날부터 모든 직원의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떠올랐을 것이다. ‘2022년의 예수병원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질문에 답을 내놓기 위해 김철승 병원장은 오래 고민해 왔다. 그래서인지 병원장실에서 만난 김철승 병원장의 미소에 진한 무게감이 묻어 나온다. 이토록 중차대한 시기, 우리 병원의 미래를 양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울까 싶었다.

김철승 병원장은 지난 2019년 6월 취임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 병원의 체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Great again’를 구호로 우리 병원의 개혁과 혁신을 주도했다. 특히 환자 제일주의 운영 철학과 선도적인 경영 전략으로 그동안의 역경을 정면 돌파하며 리더십을 증명했다. 과연 리더로서 김철승 병원장이 돌아본 2021년은 어땠을지, 그리고 2022년의 로드맵은 어떻게 구상해 두었는지 지금 들어본다.



지난해를 마무리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2021년의 목표는 'Great again'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시설 · 장비 인프라 개선과 첨단 의료 서비스 혁신을 통해 자랑스러운 124년 역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대대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통해 낙후된 인프라 개혁을 완수했습니다. 호남 최초로 암센터를 건립해 완공하고, 인공신장센터와 건강의학센터, 심장혈관센터 등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64채널 PET-CT와 VMAT 선형 가속기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해 선진 의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드웨어 개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직원 교육을 강화해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장애인을 위한 배려 승강기를 설치해 장애친화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도 거뒀습니다. 이렇듯 2021년은 우리 병원이 '다시 위대해진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2년을 이끌어 갈 목표와 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다시 강대하고 위대한 예수병원'과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 예수병원'입니다. 지난해 동안 다져온 내실을 바탕으로 새해를 도약기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BIG 5 대형 병원과도 자웅을 겨룰 수 있도록 시설과 조직, 의료 장비와 의료 기술, 고객 서비스와 운영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를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진료 환경 및 연구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신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부서인 경영지원팀과 적정 진료를 위한 진료분석팀을 신설해 각 업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시설 투자와 첨단 기기 도입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 사양의 로봇 수술기와 암 환자 치료 장비를 도입해 미래 스마트 병원에 한층 가까이 가겠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인 EMR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환자분들이 주차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진료, 입원, 치료, 퇴원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통합 관리'받을 수 있게끔 발전할 계획입니다. 또 2019년 선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021년 선정된 권역재활병원에 이어 올해도 광역권 병원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100년의 철학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봉사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 온 직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 하라'는 설대위 병원장님의 가르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병원을
> 일하기 좋은 병원,
>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 자랑할 수 있는
>
>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 다짐입니다.

선진 병원이란 어떤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량적 선진과 비정량적 선진, 두 가지가 다 갖춰진 선진 의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정량 평가가 가능한 부분은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달성이 쉽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좋은 인프라로 채워진 시설, 더 안락하고 편안한 병상 등이 그것입니다. 또 의료 기술 역시 수술이나 치료의 경과가 명확하므로 발전의 척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량적인 부분, 즉 철학적인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환자 대 의료인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예로 들자면, 말기 환자가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환자의 마음을 보듬어 심신을 모두 치료하고 보살피는 것, 즉 측은지심의 의료 철학이 선진 병원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을 위해 애쓰는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 의료인들에게 더없이 고통스러운 고난입니다. 감염 예방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할 일을 다 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124년이란 자랑스러운 우리 병원의 역사는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단한 벽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낯선 길로 나아가자 말하는 저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큰 뜻에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고맙고 죄송한 마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병원을 일하기 좋은 병원,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예수병원의 구성원임을 자부심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i Interview



함선희 간호국장

Q1 선진 간호를 정의해 주신다면?

A1 간호가 기술을 넘어 인술仁術로 거듭나는 것이 아닐까요? 간호의 본질에는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지요. 뛰어난 간호 · 간병을 통해 환자들이 더 알맞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몸을 넘어 마음의 건강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환자와 교류하는 것이 선진의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이연규 행정국장

Q2 선진 행정을 정의해 주신다면?

A2 병원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편리한 행정이 선진 행정입니다. 병원의 행정 효율을 끌어올리다 보면 때로 환자보다 병원의 편의가 우선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병원 운영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환자가 원무나 진료 과정에서 더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선진 행정은 곧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입니다.

2022년 첫걸음
새 마음으로

서랍에는 절반도 채 못 쓴 다이어리가 있지만,
또다시 새해 다이어리를 펼친다.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픈 작은 바람이다.
이번엔 기필코 다 쓰리라 다짐하며 첫 장에
새해 목표를 적어본다.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한 해를 그려보는 시간.
예수병원 가족들이 새 마음으로 그려보는
새해는 어떤 모습일까?

2022년은 제 나이 앞자리가
바뀐 아프지만 소중한 해입니다. 영국
소설가 빅토리아 홀트가 말한 "절대 후회
하지 마라. 좋았다면 멋진 것이고, 나빴다면
경험인 것이다."처럼 올해도 꿋꿋하게
열심히 즐기려고 합니다!

홍보실 남지현

새해 소망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밝은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처럼 환자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곁에서 보다 보니
우리 재활센터, 더 나아가 예수병원에 오시는 모든 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되는 새해 소망이 되었습니다.

재활센터 김진성

작년을 되돌아보면 실수도 잦았고
후회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듯이 언젠가는 내 앞에
펼쳐질 필연이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대하던 진실하고 순리에 맞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싶고 다가오는 새해를 호랑이
기운으로 힘차게 나아가려 합니다.

시설관리과 심지훈

20대 마지막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해서
올해는 다이어리를 쓰며 삶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만큼 올해는 성숙한
내가 되길 기대합니다.

간호국 염소화

지난해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항상 우리 얼굴과 함께한
마스크였습니다. 과거에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씩 변하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언젠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김미경 강사의 "오늘을 채우세요.
그러면 그 오늘이 꿈으로 밀어내 줄 겁니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힘겨움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꿈을
채워나가는 멋진 하루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QPS실 강윤석

참 다사다난했던 21년을 보내고
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수병원에 입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배우며 제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를 격려하며 이끌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어느 시상식에서 한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병원 가족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벽인 줄 알고 있었던 문을 꼭 찾으시길 바란다." 는 이 말처럼,
올해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상을 향해
열린 문이 되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병원사업부 이예본

지난해를 돌아보니
새해 계획 중 중간에 그만두거나 시도 조차
못한 일들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새해 목표들을 모두 이뤄내 나태하게
지낸 시간을 후회하는 일이 없는 알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영지원팀 유진

며칠 전 라디오에서
한국 사람들 중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보다는 얼마나
계획에 더 다가갔는지 생각하려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닌 숲 전체를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 김희정

智異山
지 리 산

때로는 자애롭고,
때로는 잔인한 아름다움

함양에서 만나는 **지리산**

웅장한 대지가 온몸을 뒤척이다 멈춰버린 듯, 지리산의 산세는
험준한 능선과 깊은 골로 무성하다. 비탈 사이사이 여울을 깔고 드러누운 계곡과
능선의 맵시는 절로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이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비정한 자연의 얼굴이 숨어있다.

비탈을 오므려
절경을
찔러 넣다,

칠선계곡과 천왕봉

지리산에 오르는 코스는 많지만, 함양 방면으로 들어와 칠선계곡을 거쳐 천왕봉에 닿는 길은 '명소 꿰기 코스'로 통한다. 특히 '지리산을 다 보았다'고 말하려면 천왕봉과 칠선계곡에 꼭 들러보아야 한다. 천왕봉은 지리산 최고봉으로, 높이는 1915m이며 휴전선 이남에서는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다.

칠선계곡은 천왕봉부터 시작해 마천면 의탄까지 무려 18km에 걸쳐 제 몸을 뻗고 있는데, 설악산의 천불동계곡, 한라산의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계곡으로 뽑힌다. 천왕봉부터 마폭포까지 이어지는 2km 구간은 지리산에 남은 마지막 원시림으로, 노련한 산악인이 아니라면 등반을 권하지 않는다. 비선담까지 이어지는 계곡 길 역시 중국의 잔도가 생각날 만큼 가파르고 험준하다.

비선담에서 계곡 밑자락인 추성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와 잘 정비된 등산로 덕에 수월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계곡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에 대비해 두툼한 등산복 등 등산 장비를 든든하게 챙겼다면 등반에 나서도 좋다. 보는 눈이 시릴 정도로 투명한 빛깔로 깊이감을 왜곡하는 계곡의 물결이 철을 가리지 않고 방문자들의 시선을 붙잡아 둔다. 뺨을 보드랍게 두드리고 지나는 산바람과 풀벌레, 날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삶의 비탈마저 평탄케 만들 만큼 마음을 다독인다.



재촉을 멈추고 삶을 달래는 여행길

아침에 계곡에 올랐다면 점심을 조금 넘겨 마을로 돌아올 수 있다. 이쯤이면 슬슬 공복을 달래보고 싶어지기 마련인데, '칠선산장민박'이라 써진 간판이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입장하면 된다. 계곡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앉아 파전 한 접시에 매콤 새콤한 도토리묵을 받아들고 고소한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면 배고픔은 물론이요, 고단함도 든든함으로 바뀐다. 칠선계곡이 산봉우리부터 끌어모아 대지에 던져놓은 물과 바람이 동석하는 식사 자리인지라 '혼밥'에도 쓸쓸함이 없다.

속을 채웠으니, 다음 볼거리로 마음을 채우러 결음을 옮기라. 칠선산장에서 천왕봉 반대 방향 산길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서암정사'가 나온다. 고찰인 벽송사로부터 서쪽으로 60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은 서암정사는 화려한 단청과 단아한 팔작지붕의 한국 진통미를 흠뻑 머금고 선 법당도 인상적이지만, 자연 암반에 수놓은 각양각색 불상들과 불교의 극락세계를 표현한 조각 법당이 신비로운 맵시를 뽐내기에 꼭 들리보아야 할 곳이다.

다음 방문지로 가려면 차가 필요하다. 구룡리 방향으로 1023번 지방도를 타고 약 12km 정도를 죽 올라가면 지안재가 나온다. 마치 땅에 오른 이무기가 기어간 흔적을 도로로 툭 잘라 덧댄 듯한 모양새인데, 차로 지안재를 직접 타는 것은 별 재미가 없고 고갯마루에서 내려다보는 재미가 제법이다. 뒤로는 지리산의 실루엣이, 앞으로는 고갯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니 왜 여기가 사진 명소로 꼽히는지 짐작이 간다.

이어서 함양군 읍내를 넘어 개평리까지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마지막 방문지인 '개평한옥마을'의 풍경이 펼쳐진다. 하동 정씨와 풍천 노씨, 초계 정씨 세 가문이 오랜 세월 뿌리내려 살아온 이 마을에는 일두고택 등 전통가옥이 60채나 들어서 있고, 선조들이 시와 산수를 즐겼던 교수정과 소나무 군락지 등이 남아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말고도 개평한옥마을은 단순히 풍경만으로도 즐거운 추억을 선물한다. 사람 키만큼 쌓인 돌담과 포석이 깔린 흙길을 거닐며 옛 선비들의 풍류를 감성적으로 체험하기 좋다. 전주한옥마을과 비슷한 듯 다른 기분이 드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도시의 소음과 넘새가 없는, 고즈넉하고 한가로운 오후 볕이 이곳만큼 은은하게 녹아드는 한옥마을도 드물 테니 말이다.

여행길에서 무엇을 주워 돌아올지는 여행자의 안목에 달린 일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 깨달음은 확실히 얻고 귀갓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산에도 삶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한 걸음 정도는 계곡 길에, 두 걸음 정도는 마을 길에 걸쳐보는 여유가 당신에게 찾아올 수 있길 바란다.



1





3

Landscape 1 ____ **칠선계곡**
지리산의 마지막 원시림과 7개의 폭포, 33개의 소가 들어찬 계곡으로 천왕봉부터 용소까지 18km에 걸쳐 이어진다. 깊이 들어갈수록 길이 험준해 '죽음의 골짜기'로도 불린다.

Landscape 2 ____ **서암정사**
고찰인 벽송사로부터 서쪽으로 600m정도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은 서암정사는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벽송사를 재건한 원응 스님이 완성한 암자다. 석굴 법당과 시자굴, 대방광문 등을 모두 자연 암반을 조각해 만들었다.
주소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79
연락처 | 055-962-5662
홈페이지 | www.sueam.net

4



Landscape 4 ____ **칠선산장민박**
숙박과 식당을 겸하는 오래된 산장이다. 이곳 대표 메뉴는 산채비빔밥이만, 파전과 막걸리도 명물로 손색이 없다.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칠선로 194
연락처 | 055-962-5630 **영업시간** | 기상 조건에 따라 다름
주요 메뉴 | 산채비빔밥, 도토리묵 무침, 지리산 막걸리 등



Landscape 3 ____ **개평한옥마을**
개평마을은 조선 5현의 하나인 정여창 선생의 고향으로 특히나 유명한 곳이다. 이 마을 특산품으로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솔송주'가 유명한데, 정여창 선생의 종가에서 술과 식혜, 엿을 써 담근 가양주이며 진한 솔향기가 특징이다.
주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59
연락처 | 055-963-9645
입장료 | 무료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

원무과 **최점숙**



칭찬 Challenge
이달의 주인공은 올해로
예수병원 근무 35년 차를 맞이한
베테랑, 원무과 최점숙 선생님입니다.
최점숙 선생님께서는
국민안심병원에서 함께 일한
호흡기 · 알레르기내과 이민희 과장님을
챌린지 대상으로 지목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간
최점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66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환자와 직원분들을
돌봐주시는 모습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99

칭찬해 주셔서 쑥스럽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알레르기 검사실 차지혜 간호사님이 잘 칭찬해 주셨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환자분이나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맞이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무언가를 잘했다기보다는 예수병원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께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작은 도움을 드린 것뿐인데 칭찬해 주셔서 쑥스럽기도 하면서 기분이 좋네요.

호흡기 · 알레르기내과 이민희 과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병원이 코로나19 감염 대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이민희 선생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선생님 곁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 직원과 환자 모두에게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업무도 신속하게 척척 해내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바쁜 업무로 피곤할 만한데 전혀 내색 없이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마음을 다해 대해주셨죠.
최근에는 제 어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을 때 마침 호흡기 담당으로 이민희 선생님이 응급실에 계셨어요. 선생님께서 거듭 설명해 주시면서 어머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병원 직원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환자분께도 항상 진심으로 대하시고, 안심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환자와 직원분들을 돌봐주시는 모습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져서 이민희 선생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2022년 새해 소망

아무래도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노력해야 서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병원에서의 새해 소망으로는 예수병원이라는 이름만으로 신뢰를 주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최대한 잘 해드려서 모두가 만족하고 가시면 더는 바랄 게 없어요. 그렇게 환자에게 호감으로 다가가는, 그런 병원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게 새해 소망입니다.

불모지에 심은

1897년 11월, 푸른 눈의 의사가 전주에 왔다.
미신 숭배, 서양 의학에 대한
불신이 낭자한 의료 불모지 전주를 개척한
마티 잉골드의 숭고한 발걸음을 확인해 보자.

숭고한 헌신

한강 이남 최초 의사 **마티 잉골드**
(Dr. Mattie, B. Ingold, 1867~1962)

마티 잉골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1896년, 마티 잉골드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마티 잉골드는 의학이론과 실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두 개의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대학 진학 중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은 그녀는 선교사로서의 각오와 자세를 갖추며, 선교지로 향할 준비를 하였다. 졸업 이듬해인 1897년 7월 23일 마티 잉골드의 선교 여정이 시작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히코리에서 출발해 하와이와 요코하마 등을 거친 백여 일의 여정 끝에 마침내 전주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주를 처음 마주한 광경을 보고서에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기록하였다. 잉골드는 의료 선교 사역이 의료 사역만으로 되지 않으며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국 말을 배웠다. 또 자신을 낯설어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들의 생활과 풍습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부족한 한국 말로라도 소통하려 애썼다.

마티 잉골드가 전주에 도착한 지 1년이 되는 1898년 11월 3일, 초가지붕 진료소를 개원해 진료를 시작하였다. 첫날에는 여섯 명의 환자를 돌보았고, 처음 한 달간 백여 명의 환자가 진료소를 찾았다. 124년 역사를 지닌 전주예수병원의 첫걸음을 내딛은 날이며, 마티 잉골드의 숭고한 헌신이 뿌리내린 날이다.

마티 잉골드 선교 여정

- **1897.07.23.** 노스캐롤라이나주 히코리
- **1897.08.05.** 샌프란시스코
- **1897.08.14.** 하와이 호놀룰루
- **1897.08.26.** 일본 요코하마
- **1897.09.15.** 인천 제물포
- **1897.11.03.** 전라북도 전주

의료 발전을 일궈낸 마티 잉골드의 사명

서양 의학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남성의 권위가 드높던 구한말 전주에서 '외국인 여성'이라는 점은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마티 잉골드의 헌신은 서서히 지역민들의 마음을 열었고, 민간요법이나 미신을 숭배하던 이들이 서양 의학의 효과를 믿게 하였다. 복음 우선의 선교를 강조하는 미국 선교부의 정책과는 달리 마티 잉골드는 의료 중심의 선교를 펼쳤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나 그녀는 뛰어난 사명감을 동력으로 선교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녀는 루이스 테이트 목사와 결혼하여 농촌 선교에 주력하면서도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28년간 이어진 마티 잉골드의 공헌은 의료 불모지였던 전주에 틔운 싹이었으며, 가장 오래 지속된 민간 선교 병원인 전주예수병원이라는 결실을 보게 하였다.

숫자로 보는 **마티 잉골드**



금메달 2개
마티 잉골드가 의과대학 졸업 때 획득한 메달 수

1897년
마티 잉골드가 한국에 첫발을 내딛은 해

100명
진료소 개원 후 첫 달에 방문한 환자 수

달걀 1꾸러미
마티 잉골드가 진료 후 받은 첫 번째 수입(10알)

124년
잉골드를 시작으로 지역민과 함께한 예수병원의 시간

28년
마티 잉골드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기간



간호 현장을 다독이는 든든한 헤드쿼터

예수병원 **간호국**

어느 병원이나 최일선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하며 의료 서비스를 펼치는 간호사들의 업무는 '현장'으로 정의되곤 한다. 우리 병원도 간호 업무의 특성은 마찬가지지만, 간호사들의 지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간호국의 임무는 현장과는 사뭇 다르다. 주삿바늘보다는 펜을, 처방보다는 상담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이들의 하루 속으로 스며들어 본다.

가르치고, 다독이고, 소통하라

간호국은 우리 병원 내 700명이 넘는 간호국 직원의 '헤드쿼터', 즉 지휘 본부다. '환자 존중, 마음 공감, 행복한 간호'라는 구호 아래 모여 간호 업무를 총괄하며, 간호국 내에는 교육과와 병동과, 특수부서외래과 총 3개 과가 있다.

과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에서는 간호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교육 · 연구 · 인프라 양성(프리셉터 등) 등 전문분야별로 교육하고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해 간호사 경력개발과 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동과에서는 본격적인 진료 지원 활동과 병동별 간호 · 간병 업무를 지휘한다. 특히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해 맞춤 간호를 펼치도록 노력한다. 특수부서외래과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공신장실 등 특수 장비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서들을 전담해 간호 · 간병을 비롯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처럼 간호국의 업무는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하기에, 함선희 간호국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된 간호국 멤버들은 '소수 정예'로 활약 중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지금의 보직을 임명받아 '시차 적응'을 꽤 거쳐야 했다. 처음 간호국에 부임했을 때에는 현장과는 너무 다른 업무 방향 때문에 갈팡질팡한 기간도 있었다. 어색한 업무 중에서도 가장 낯선 것은 바로 '타 부서의 입장 들여다보기'였다. 현장 근무일 때는 자기 병동, 자기 담당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면 됐지만, 간호국에 들어온 후로는 타 부서는 물론 간호 외의 업무도 파악하며 갈등과 관계를 조정해야 했다. 게다가 행정 부분이 익숙지 않아 힘들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원활하게 행정 업무도 처리한다.







예수병원 간호사들의 대모님들

이처럼 담당 업무만으로도 눈코 뜰 새가 없는데, 간호국은 각 과 소속 간호사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사명감을 심어주는 '대모'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아무래도 환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간호 업무의 특성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적인 부분을 잘 보살펴야 해서다. 그래서 매일 상담하러 오는 동료 간호사들이 '예수병원이 그리는 꿈이 실현되어 간호사와 환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로 변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마음을 다독여 준다.

간호국 멤버들의 경력은 평균 30년 이상으로, 임상 현장에서 구슬땀 흘려가며 축적한 내공이 달인 수준이다. 그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들에게도 최근 심화한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은 답을 내놓기 어려운 숙제다. 현재 일하고 있는 동료들 역시 어려운 대면 업무에 심신이 고단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이런 난관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동료들을 위하는 마음과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 덕분이었다.

간호사가 행복할 때 환자도 최고의 간호를 받으며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간호국의 표어인 '환자 존중, 마음 공감, 행복한 간호'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짚을 수는 없지만, 무엇 하나라도 빠진다면 세 목표 모두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간호국의 내일이 행복으로 채워지길 기원한다.

1 2 | 3

1 ____ 간호국 과장들은 각 과별 이슈를 공유하고 문제 상황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 대화를 나눈다.

2 ____ 간호국은 개인 면담을 펼쳐 간호사들의 사적인 경조사를 살뜰히 챙겨주거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

3 ____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전체 회의 시간을 통해 간호국은 더 나은 업무 체계를 만들고 있다.

간호국 Timeline

- **08:00** **과장 미팅**(주 1회)
  각 과의 현황과 특이 사항, 고충 등을 이야기하고 업무를 분장하거나 조정 방안을 찾는 과장 미팅을 진행한다. 가벼운 '티타임' 분위기로 갈등을 부드럽게 해결한다.
- **10:00** **체크리스트 확인 및 라운딩**(수시)
  밤새 벌어진 위급 상황, 환자별 상태 파악과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업무 흐름을 점검하고, 라운딩을 실시해 통상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 **13:00** **부서별 점검 / 교육 진행**(수시)
  세미나 등 추진 중인 행사를 준비하거나 오전 중 발생한 특이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특수 부서 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 **15:00** **수간호사회의**(주1회)
  간호 · 간병 업무를 복기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하며, 학술적인 토론과 함께 간호국 전반에 걸쳐 의견 수렴을 펼친다. 시스템 개선이나 제도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는다.

Mini Interview



여러분들의 행복이 환자의 행복입니다.

이덕자 병동과장
"행복한 간호를 위해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야 환자도 간호사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사명감과 보람을 이끌어내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한순희 교육과장
"우리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 미래의 간호 인재들이 될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과 역량개발에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간호사 본연의 사명감과 보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특수 부서를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이성희 특수부서외래과장
"상태가 위중했던 환자가 건강을 되찾아 병원을 떠나시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매일 전문 지식과 친절한 봉사 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동료들께 항상 감사드려요. 이처럼 일선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특수 부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니까요."



바람을 온몸으로 가르는 사이클의 매력에 함께 타실래요?

비뇨의학과 PA **임낙연**

온몸으로 바람을 맞는 짜릿함과 내리막을 질주할 때의 희열.
어느덧 6년째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사이클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예수병원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픈 제 취미를 소개합니다.





Riding Tip _____ 푸른 섬 제주의 바람을 달리다

지난 9월, 제주도 당일 완주 목표를 세우고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속도가 시속 30km를 넘지 못해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간 일행과 선두를 바꿔가며 함께 페달을 밟아 나아갔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겠지만 일행과 협심하여 제주도 한 바퀴를 9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며 궂은 날씨에도 제주도를 완주했던 추억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이클과의 첫 만남

어렸을 때는 축구를 하며 우리나라 1세대 풋살 국가대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선수의 꿈을 접게 되었고, 축구를 계속하기엔 다른 사람과 시간 맞춰 운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시간 제약 없이 혼자서 할 수 있고, 부상을 피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 사이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바람을 몸으로 받는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생활체육 자전거 대회도 출전하고 대회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한두 차례 대회를 나가다 보니 욕심이 생겨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자전거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는 구이와 신리 쪽으로 약 40km를, 퇴근길에는 임실 국사봉 주위로 약 60km 정도를 자전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생활화를 통해 남들은 정신없이 바쁜 출퇴근 시간에도 작은 여유를 누리며, 교통 체증을 피해 계절마다 좋은 경치를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 페달을 밟으며

전주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작년부터 'STR'이라는 팀을 만들어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좋은 경치를 감상하며 부상 없이 라이딩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올해엔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주관하고 최강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MCT) 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겨울 시즌에는 '즈위프트Zwift'라는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처럼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제 모습을 보시고 예수병원 선생님 두 분도 자전거에 입문하셨습니다. 점점 더 여러 직원분과 좋은 곳을 라이딩하며, 예수병원에 자전거 모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이클은 상대 팀과 겨루는 형식이 아닌 혼자 또는 나란히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심폐 지구력 및 근력 강화에도 매우 좋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쉽게 접하고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이클 운동. 여러분도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애정으로 조선을 치료하다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1876~1910)

박에스더를 소개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이자 여성 의학 박사라는 칭호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이력이 그녀를 의인의 반열에 올린 것은 아니다. 박에스더가 오늘날 존경을 받는 이유는 나보다 남을, 이득보다는 이로움을 소중히 여기며 결핵 퇴치와 현대 의학 보급에 앞장선 숭고한 삶의 궤적 때문이다.

조선의 여인으로 태어나 만인의 의인으로 죽다

박에스더는 1876년 한양 점동에서 김홍택의 셋째 딸로 태어났으며, 본래 이름은 김점동이다. 그녀가 태어난 1876년은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해이며, 얄궂게도 박에스더가 세상을 떠난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일어났다. 그녀의 삶과 조선의 운명은 끝맺음을 공유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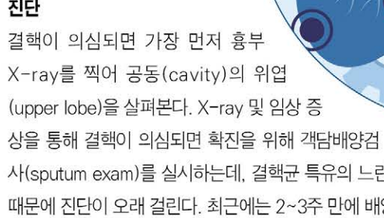
1886년 이화학당에 입학하면서 처음 신앙에 눈을 뜬 그녀는 1891년 세례를 받고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얻음으로써 신실한 믿음과 희생의 가치를 터득한다. 또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의사들의 통역을 맡아 일하면서 '언청이(구순구개열)' 환자와 화상 환자 등을 수술을 통해 감쪽같이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의사의 꿈을 품는다. 1893년 선교사들의 소개로 박유산을 만나 결혼한 그녀는 서양의 풍습대로 남편 성씨를 따라 박 씨로 성을 바꾸면서 '박에스더'의 삶을 시작한다.

이후 박에스더는 부부 동반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 1900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졸업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남편을 폐결핵으로 잃는다. 이때부터 그녀는 결핵 퇴치에 앞장서게 된다.

조선에 돌아온 박에스더는 10년 동안 주로 여성 환자들을 돌보며 조선 각지를 누비는 왕성한 의료 봉사를 펼친다. 국권을 침탈당하는 어두운 시대상, 여성과 여성 의사에 대한 편견,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당시 조선의 의료 환경…. 어렵고 힘든 난관을 극복하며 오로지 동포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조선을 치료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녀는 1905년 길린 폐결핵이 악화되고 과로까지 겹쳐 1910년 35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만다. 조선의 여인으로 태어나 만인에게 치유의 손길을 건넨 의인으로 죽은 것이다.



삶을 소비하는 질병, **결핵**



박에스더의 유지를 이은 셔우드 홀

셔우드 홀은 박에스더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앞장선 외국인 선교사다. 셔우드 홀은 어머니 로제타 여사가 박에스더와 '보구여관'에서 맺은 인연으로 조선의 결핵 퇴치에 관심이 깊었다. 박에스더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던 그는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고, 그 기금으로 결핵 전문병원을 세워 결핵 퇴치에 공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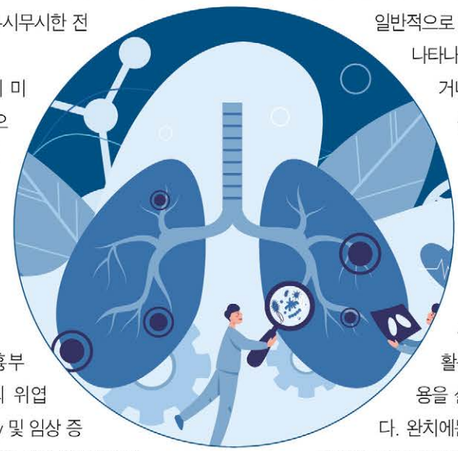
역사

현대에 이르러 결핵은 '후진국 병'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업화 시기까지만 해도 암에 준하는 무서운 병이었다.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과 부족한 의료 인프라, 열악한 국민 영양 상태와 높은 인구 밀집도 등 결핵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대 이전에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사망률이 무려 50~6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다.

또 9천 년 전에 사망한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결핵 흔적이 발견되었으니, 결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질병이라고 볼 수 있다.

원인과 증상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에 의해 감염되는 인수공통성 질병으로, 주로 폐가 감염되지만 다른 장기로도 감염이 퍼져나갈 수 있는 전염병이다. 대부분 처음 감염된 직후에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보균자가 과로나 기타 질병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증상이 발현되어 결핵 환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격심한 기침과 객담, 각혈이 증상으로 나타나며, 체중이 감소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때에 따라 고열을 동반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진단

결핵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흉부 X-ray를 찍어 공동(cavity)의 위엽(upper lobe)을 살펴본다. X-ray 및 임상 증상을 통해 결핵이 의심되면 확진을 위해 객담배양검사(sputum exam)를 실시하는데, 결핵균 특유의 느린 배양 속도 때문에 진단이 오래 걸린다. 최근에는 2~3주 만에 배양이 가능한 검사도 나왔다. 따라서 일반적인 결핵의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 증상과 객담도말검사, PCR을 이용한 결핵균 DNA 검사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잠복 결핵의 경우 투베르쿨린 검사와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치료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되면 경구치료제 복용을 실시하고 환자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완치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며, 결핵균이 면역세포에 기생하기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을 얻기 쉬워 꾸준한 치료제 복용이 중요하다. 처방받아 먹는 약이 많고 장기 복용을 하다 보니 증상이 조금만 호전돼 복용을 중단하는 환자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살아남은 결핵균이 여러 약제에 내성을 얻어 '다재내성'을 획득하게 되어 치료의 난도는 훨씬 높아진다. 게다가 비말 감염의 위험이 높아 감염 예방에도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 잠복기 상태인 결핵은 9개월 동안 아이소나이아지드isoniazid를 복용해 치료한다.

K-유니버스의 문을 열다

'Daebak(대박)', 'Mukbang(먹방)' 등 2021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26개의 한국어가 등재됐다. 이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컬처의 위상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독창적 세계관 설정으로 주인공 유미의 성장 스토리를 그린 웹툰 〈유미의 세포들〉과 K-드라마의 새로운 장르 개척에 나선 〈고요의 바다〉를 통해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은 K-컬처를 들여다보자.



© 넷플릭스 제공

생존 확률 10% 목숨 건 미션
고요의 바다

'사극'과 '좀비'라는 흥미로운 조합으로 전 세계에 K-좀비 열풍을 일으켰던 〈킹덤〉의 인기로 해외에서는 '갓'과 '호미' 가 예상치 못한 인기를 얻었다. 세계인의 이목을 끈 넷플릭스 K-컬처의 태동은 〈오징어 게임〉으로 폭발됐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을 다룬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83개국에서 시청자 수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출연 배우는 물론 딱지치기, 달고나 등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인기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고요의 바다〉가 베일을 벗었다. 〈고요의 바다〉는 필수 자원인 물의 고갈로 황폐해진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달에 버려진 기지로 떠난 정예 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감을 나타내듯 〈고요의 바다〉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3위를 기록했다. 〈고요의 바다〉는 한국이 선보이는 첫 SF 드라마라는 점이 무색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으로 달과 우주를 표현해냈다. 드라마 속 전 세계 물 부족 현상으로 바뀐 인류의 생활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마비된 현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K-드라마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작품의 재미에 사회적 의미를 더한 스토리의 힘에 있다. 〈고요의 바다〉에서는 "우린 다음 세대에 뭘 줄 수 있을까요?"라는 대사처럼 환경 문제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슈를 풀어내어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작품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반응을 불러오는 힘을 지닌 K-드라마의 흥행은 영상 콘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K-콘텐츠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 자극 공감 로맨스
유미의 세포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 우리 머릿속의 세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어떨까? 패션세포가 의상을 결정하고, 출출세포의 식탐과 이성세포의 다이어트 계획이 다투는 하루. 생김새는 물론 이름마저 귀여운 세포들의 이야기는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었던 〈유미의 세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미의 세포들〉은 개성 넘치는 세포들과 평범한 회사원인 '유미'의 일상과 연애를 사랑스럽게 풀어낸 작품이다. 매회 에피소드는 소소하지만 그만큼 보편적이기에 익숙한 감정을 일으키며 독자들의 공감세포를 자극하였다. 유미와 세포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된다. 6년 가까이 연재되며 유미와 세포들은 물론 독자들도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추억 앨범과도 같은 작품이다.

글로벌 누적 조회 수 32억 뷰 〈유미의 세포들〉의 인기는 웹툰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와 상품으로 2차 창작되었다.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시즌 1〉이 적절한 캐스팅과 세포 캐릭터 구현으로 호평을 얻어 현재 시즌2 촬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또한, 국순당은 〈유미의 세포들〉의 캐릭터 디자인 라벨을 부착한 와인 '유미의 가르고뜨'를 출시해 초도 물량 4만 병이 한 달 만에 완판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으로 출시되기도 했으며, 애니메이션, 뮤지컬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원작 웹툰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유미의 세포들〉의 기존 독자들을 겨냥한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비단 〈유미의 세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스위트 홈〉, 〈이태원 클라쓰〉 등 많은 웹툰이 드라마로 재창작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웹툰은 단지 '웹툰'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여러 콘텐츠의 기반이 되고 있다. 웹툰을 향한 관심과 흥행을 통해 웹툰 산업은 성장세를 보이며, 콘텐츠의 보고 역할 또한 톡톡히 해 K-콘텐츠의 핵심 분야로 우뚝 섰다.



© 네이버 웹툰 / 이동건

이력은 달라도
매력은 같은 새내기들

밝고 씩씩한 눈빛으로 첫 출근의 기쁨을 듬뿍 드러내는 이들과 만났다.
서로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같은 출발선에 꿈을 부려놓은 우리 병원 신입 사원 3인방이다.
이력은 달라도 톡톡 튀는 매력은 똑같은 이 새내기들의 당찬 인사를 들어보자.

66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병원 가족이 되겠습니다.
99

나눔과 봉사의 상징
총무과 **임은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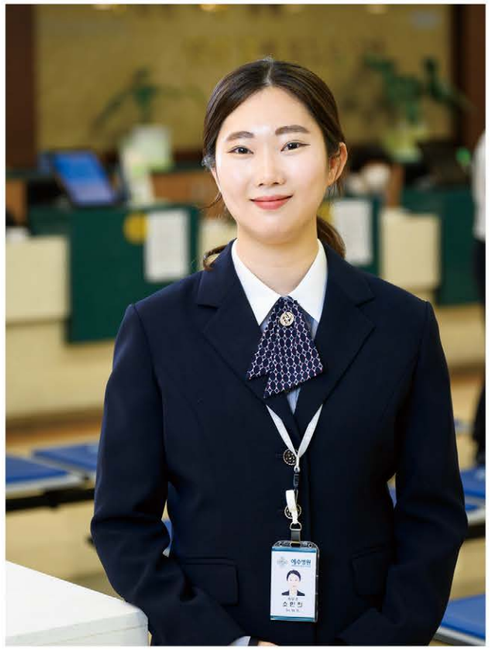


반갑습니다. 총무과 재정관리팀 신입 사원 임은지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채용 공고를 보고 예수병원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원 업무와 회계 업무, 법인카드 관리, 구매결의서 작성 같은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답답함을 크게 느꼈는데 모두 오늘을 위해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동안 누리고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라는 뜻에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병원과 동료, 환자에게 사랑과 봉사를 베푸는 삶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예수병원의 이름을 빛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66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로
성장하겠습니다
99

친절과 미소의 여왕
원무과 **소민희**

•••



저는 보건행정학을 전공했고, 우리 병원에 실습을 나왔던 경험을 살려 입사하게 되었어요. 주로 원무과 내에서 외래와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세요. 단순한 서비스 정신이 아니라, 진심이 깃든 따뜻함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맞아주시더라고요. 또 신입이다 보니 제가 실수를 하거나 버벅일 때가 있는데, 선배님들께서 다그치시지 않고 부드럽게 가르쳐 주셔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능숙한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원무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서 원무과 에이스로 커 나가고 싶어요. 매일매일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파이팅!



66
병원 운영의 핵심은 IT!
그 IT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99

패기 넘치는 막내
전산정보과 **이평안**

•••

저는 진주 토박이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했으며, 우리 병원의 OCS와 EMR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IT 기술은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담당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전산 업무를 하게 되어 겁도 나고 어색한 내용도 많았지만, 선배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업무 지도도 잘 해주셔서 어려움을 딛고 잘 적응하고 있어요. 또 우리 병원의 운영 철학과 신앙 활동에 크게 만족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의 전산 핵심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MC NEWS



01 예수병원 장애친화 의료기관에 선정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편리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애친화 의료기관'에 예수병원이 선정됐다. 전주시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 개설과 장애인 진료 편의 서비스 제공 가능 기관을 중점으로 평가했는데, 예수병원이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구축했으며, 2020년 6월 전라북도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환자 중심의 다분야 진료 연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원내 장애인 휴게실 운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주요 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이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02 예수병원 장애인을 위한 '배려 승강기' 설치

예수병원이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는 동선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장애인 전용 승강기인 '배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전주시에서 선정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예수병원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 동선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새롭게 설치한 '배려 엘리베이터'로 예수병원 정문에서 진입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설이 가능하고, 장애인 진료 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중점으로 한 평가에서 예수병원은 장애 편의 시설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구축했고, 2020년 6월 전라북도와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환자 중심의 다분야 진료 연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김철승 병원장은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환우분들의 병원 만족도 데이터를 축적하여 장애인 불편 사항을 즉시 개선할 것이며", 또한 "예수병원 모든 진료과에서 협진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장애 극복과 사회로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재활 시스템까지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3 2021년 예수병원 정년퇴임예배

2021년 11월 26일 '2021년 정년퇴임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18명의 정년 퇴임자를 위한 정선범 원목실장의 기도, 김철승 병원장의 축사 후 정년 퇴임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년 퇴임자들은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예수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축하로 정년퇴임예배를 마쳤다.

04 예수병원, 성탄절 맞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2021년 12월 10일 정문에서 '2021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전주 최대 규모 크리스마스 장식과 정문 문주의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연출로 화려함과 감동을 더해 주었다. 예수병원이 매년 준비하는 '성탄축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는 전북도민과 환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지역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다.



05 예수병원, 전라북도 보조기기 센터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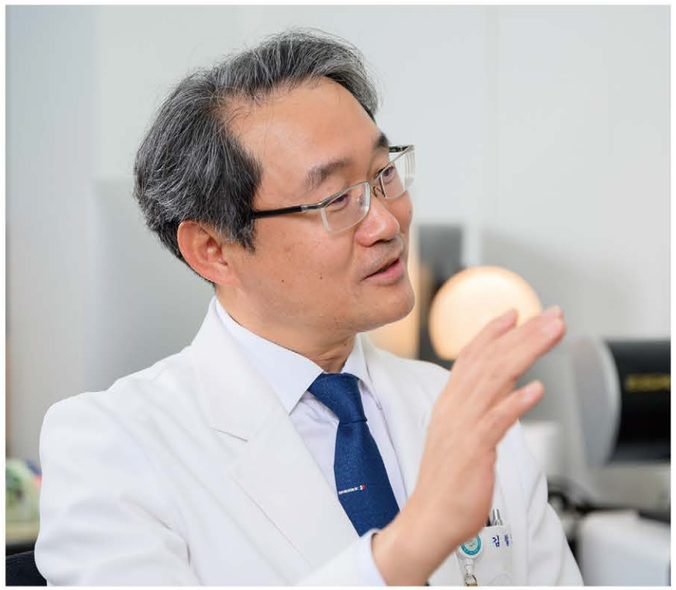
예수병원이 전라북도 주관 장애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효율적인 보조기기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의 활동 제약 최소화를 수행하며, 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06 예수병원, 완화의료센터 본격화

완화의료센터 개소식을 통해 새롭게 제공되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소개하고 본격 운영 계획을 밝혔다. 존엄한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한 완화의료센터는 통증 관리부터 시작하여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상담, 경제적 지원, 영적 돌봄까지 총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센터장과 전문 의료진의 평가를 통해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선진 완화의료 서비스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07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공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자에 선정된 김철승 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예수병원은 전주시청과 '전주형 어르신 통합돌봄 2021, 건강 ·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덕진구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을 위한 지역의료 복지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모델 개발 및 보건 의료와 돌봄 간 연계 등의 안정적인 추진의 유공자라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을 설명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자부담 없이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 개선을 위한 늘푸른 학교 운영 및 동별 순회의 이동 검진, 재가 의료 진료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 지원을 하고 있다.

08 예수병원,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개소

지난 1월 3일,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예수병원은 지역사회 치매 관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 예수병원 주변에 센터를 마련하였다. 이는 상호 간 긴밀한 업무 협약 이행을 위한 조치로, 치매안심센터와 공립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및 자원 발굴, 홍보,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한명일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는 2019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라북도에 치매 관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광역치매센터와 예수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치매 환자와 가족, 도민들에게 필요한 안식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관내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이에 선정된 예수병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탁 예산으로 6억 900만 원(기금70%, 도비30%)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치매 관리 사업의 주춧돌 역할을 할 예정이다.

09 예수병원, 2022년 시무식 개최

2022년 1월 3일, 예수병원이 새해를 맞이해 본관 4층 예배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예수병원의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세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시무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시무예배는 정선범 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사장 임기수 목사(전주에일교회)가 '다 잘되는 해'를 주제로 예배를 진행하였다. 임기수 이사장은 "전주예수병원의 124년 역사 중 지난해는 특히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한없는 은혜와 무궁무진한 축복의 시간이었으며, 예수병원만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철승 병원장은 "2022년 병원과 의료계는 많은 도전과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대응하는 의료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였다. 또한 "병원 곳곳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모든 직원 여러분의 활동이 예수병원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시작이며, 혁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예수병원 직원들의 힘찬 새해의 시작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진웅 부원장의 선창으로 2022년 표어 '다시 강대하고 위대한 예수병원(Be Strong and Great Again!)'과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 예수병원'을 직원들이 다함께 힘찬 목소리로 외치며 올해 첫 업무 시작을 알렸다.



10 예수병원, '2022년 미래선도의료' 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 개최

예수병원은 본관 예배실에서 '2022년 미래선도의료' 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비전선포식에서 김철승 병원장은 새 비전인 '다시 강대하고 위대한 예수병원'을 대대적으로 선포하였다.

예수병원은 2019년 김철승 병원장 취임 이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뛰어넘어 대외적으로 큰 성장이 있었으며, 병원을 둘러싼 주요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할 시점이라 판단해 새 비전을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비전 실현의 밑바탕이 될 2022년도 예수병원의 미래의 청사진을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목표의식도 함께 부여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이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 이념과 비전을 토대로 전 직원이 노력했기에 가능했다."며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 비전과 핵심가치를 전 직원이 가슴에 잘 새기고 지역민들에게 높은 의료 서비스로 보답하자."고 강조했다.

김철승 병원장의 발표는 형식적인 비전이 아닌 21년에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22년도 예수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다양한 영상과 과정을 통해 비전을 돌출해 내어 직원 공감대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부와 후원으로 희망이 다가옵니다

기부와 후원이 우리 이웃과 지역 공동체에 희망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병원이 펼쳐온 사회공헌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자세한 기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허기석내과의원
원장 **허기석**

66
사회공헌으로 이웃을 돕는
병원이 되길 바랍니다.
99

제게 예수병원은 어려울 때 기대고 보탬을 주기도 하는 '친정'입니다. 사회공헌에 헌신하고자 하는 예수병원에 보탬을 드려 기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기에, 병원을 돕는 것은 곧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병원이 공적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하길 기대합니다.

허기석, 유선희 부부 발전 기금 2,000만원

66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병원이 되길 기도합니다.
99

항상 동문으로서 예수병원에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얻어 다행입니다. 이번 후원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기쁩니다.
예수병원이 저의 작은 행동을 통해 열방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리라고 믿으며, 더 많은 동문들이 이러한 뜻에 동참해 세상에 희망을 건네기를 바랍니다.

이석재, 조희숙 부부 발전 기금 1,000만원



누가내과연합의원
원장 **이석재**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우리 병원을 위해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 예수병원이 내일을 꿈꿉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돼요.**

진료 환경 개선
진찰실, 병실 등
리모델링

교육 환경 개선
세미나실,
최신 교육 기자재 도입

연구 기금
기독의학연구원 연구비,
각종 암과 난치성 질환 연구

불우 환자 지원
저소득층 진료,
외국인 노동자 진료 등

예수병원 박물관 운영비
세미나실,
최신 교육 기자재 도입

기타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국민건강
및 복리에 기여, 의료 선교 등

생일 **감사의 후원** 어떨까요?

1965년 미국 남장로교회 부인회가 생일감사 헌금을 예수병원에 헌납하여 당시 '용머리 고개의 기적'이라 불린 호남 최대의 예수병원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병원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1년에 한 번 자신의 생일에 예수병원 '생일감사 후원'으로 기쁜 날에 의미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일감사 후원 계좌번호 〈신협 131-003-861449,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예수병원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표함)과 법인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재정부 공익성기부금단체지정 2007.9.28.)

후원 참여는 이렇게 해주세요.

후원 형태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 기금 | 예금주 :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10-23-0317364 농협 658-01-031404
국민은행 751901-01-465000 신협 07063-12-004188
기업은행 304-020172-01-309 기업은행 304-020172-01-309(주차동 모금 계좌)

후원 방법에 관해 본원 발전 기금 담당(063-230-8028)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예우**를 해드려요

예우 내용 / 후원 금액		5백만 원 미만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감사장/감사패 전달		●(감사장)	●(감사장)	●	●	●	●	●	●
차량 출입증 교부(무료 주차) 후원인 예우 카드 교부				●(10년)	●(평생)	●(평생)	●(평생)	●(평생)	●(평생)
진료비 감면 혜택(본인 및 배우자) 〉예우 기간 동안 300만 원 한도				3년	5년	명예 직원 예우	명예 직원 예우	명예 직원 예우	명예 직원 예우
종합 건강진단 (본인 및 배우자)	적용 금액		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명예 직원 예우	명예 직원 예우	명예 직원 예우	명예 직원 예우
	적용 기간		1년	1년	3년	5년	평생	평생	평생
예방접종 (본인 및 배우자)	독감			연 1회 3년	연 1회 5년	연 1회 평생	연 1회 평생	연 1회 평생	연 1회 평생
	대상포진 (1회 제공)			●	●	●	●	●	●
	폐구균 (1회 제공)	●	●	●	●	●	●	●	●
병원 간행물 발송		●	●	●	●	●	●	●	●
병원 주요 행사 초청		●	●	●	●	●	●	●	●
병원 기념품 제공		●	●	●	●	●	●	●	●
초청 만찬		●	●	●	●	●	●	●	●
건물 벽면 기부자 성명 영구 보존		●	●	●	●	●	●	●	●
센터, 병실 등에 기부자 성명(아호) 명명					●	●	●	●	●
진료 편의 제공					●	●	●	●	●
의전 서비스							●	●	●
마스크 부조 및 제막식								●	●



소중한 나눔으로 일구는 따뜻한 동행,
예수병원 발전 기금 모금

작은 나눔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병원은 의료기관 최초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법인으로 지정받아 소중한 정성을 모아 진료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봉사, 선교 활동 및 기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으로 희망의 싹을 틔우는 여러분의 고귀한 동참을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에 관해 본원 발전 기금 담당(063-230-8028)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예수병원 **진료 일정 안내**

대표전화 1899-1843 / 230-8114 /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 일정은 **2022년 1월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오전	오후
내과 가정의학과 230-1510	조충환	노인의학, 성인병, 암검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증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화, 수
	이재성	성인병, 암검진, 건강증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금
	최미림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
	김호철	치과, 건강검진	월 ~ 금	월 ~ 금
내과 내분비내과 230-1300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김지혜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 질환, 골대사질환, 부신 질환, 내분비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월, 수, 목	월, 화, 금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금	수, 목, 금
	류마티스내과 230-1300	홍명주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수, 금
내과 소화기내과 230-1300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
	김지웅	간, 담도, 췌장, 위장관질환	화, 수, 금	-
	정금모	간, 위장관질환	월, 수	목
	이명재	위장관질환, 소장질환, 염증성 장질환, 영양치료	수, 금	월, 목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금	-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금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수, 금
	양성열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화, 목
	허대혁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월
	허현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화, 수
내과 순환기내과 230-1350	류제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목, 금	-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천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목, 금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 목	월, 수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화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금	화, 목
	김다혜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월
	이지하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수	-
내과 신장내과 230-1300	이광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수, 목	월, 수
	선인오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조이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목, 금
	오주환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화	월, 화, 금
	임지혜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	수
내과 혈액종양내과 230-1300	박효숙	혈액, 혈액 / 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월, 목
	조미영	혈액, 혈액 / 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월, 목	화, 수, 금

진료과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오전	오후
내과 호흡기 · 알레르기 내과 230-1360	곽진영	폐암 및 폐종양, 폐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수
	이중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이민희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특수 기관지 내시경	화, 수, 금	화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금	수, 금
마취통증의학과 230-1580	권영은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목	목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오지윤	부인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정종딜	노인마취, 정맥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 ~ 금	월 ~ 금
방사선종양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화, 목
	박혜리	유방암, 자궁암, 임파종	월, 화, 금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 ~ 금	월 ~ 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 ~ 금	월 ~ 금
	유설봉	폐병리	월 ~ 금	월 ~ 금
	안지현	소화기병리, 혈액종양병리	월 ~ 금	월 ~ 금
비뇨의학과 230-1440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소아청소년과 230-1390	박강서	소아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아토피, 알레르기검사	월, 화, 금	화, 목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월, 목	수, 금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수, 목	월, 수, 목, 금
	호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월
	박상호	신생아, 신장, 내분비질환	화, 목	화, 수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녕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김주헌	안면거상, 안면외상, 눈 · 코 성형, 쁘띠성형(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	화, 목, 금	화, 목
	강동구	안면거상, 쁘띠성형, 눈 · 코 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월, 수, 금
신경과 230-1570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신현준	어지럼증, 다발성경화증, 신경면역질환	화, 수	수, 목, 금
	정병민	두통,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월, 화, 수, 금	목, 금
신경외과 230-1420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금	수, 금
	김효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수	월, 수
	신우람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화, 목	화, 목
	박 민	뇌혈관질환, 뇌졸중, 외상, 혈관 내 수술	화, 금	화, 금
안 과 230-1450	고명규	녹내장, 망막, 각막, 사시	월, 목, 금	월, 화
	정새롬	망막, 백내장, 유리체, 포도막	화, 수, 목	목
	김근영	성형안과, 백내장, 녹내장	월, 화	수, 금

진료과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오전	오후
외과 여성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월, 수, 금
	김경아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월, 목	월, 목
	홍상기	고위험산모,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수, 금	화, 금
	백수경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부인과양성질환, 내시경수술, 폐경기장애	화, 목	화, 목
	문정범	난임, 시험관아기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수, 금	수, 금
	정태원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화, 목	화, 목
외과 영상의학과 230-8380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 ~ 금	월 ~ 금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 ~ 금	월 ~ 금
	이미숙	흉부	월 ~ 금	월 ~ 금
	송인섭	근골격, 척추	월 ~ 금	월 ~ 금
	김윤환	인터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 ~ 금	월 ~ 금
	김상헌	복부, 비뇨생식기	월 ~ 금	월 ~ 금
	정수연	흉부 · 심혈관계	월 ~ 금	월 ~ 금
외과 일반외과 230-1400	박찬균	외과응급	-	-
	김은영	외과응급	-	-
	이호영	탈장, 급성복증, 복강경	목	목, 금
	강초희	유방 · 갑상선	-	수, 목, 금
외과 간담췌외과 230-1400	김우영	간, 담도, 췌장, 탈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김주섭	장기이식(간), 간, 담도, 췌장	목	월, 목
	이유니	간, 담도, 췌장, 탈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월, 수	월, 수
외과 대장항문외과 230-1400	김갑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탈장	월, 목	월, 목
	정진용	대장암, 항문질환, 탈장, 소아외과, 일반외과	화, 수, 금	화
외과 상부위장관외과 230-1400	이종명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외과 유방 · 갑상선외과 230-1400	김철승	유방 · 갑상선	화, 금	화
	박영삼	유방 · 갑상선, 두경부	월, 수	월, 금
	김예정	유방 · 갑상선, 일반외과	목	월, 수, 목
외과 혈관이식외과 230-1400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 혈관중재시술, 혈관 · 이식	화, 금	화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 혈관중재시술, 혈관 · 이식, 유방 · 갑상선	화, 수	금
	김미진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 혈관중재시술, 혈관 · 이식, 유방 · 갑상선	월, 목	화
외과 소아외과 230-1400	김예정	소아외과	목	월, 수, 목
외과 국제진료소 230-1400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화	목
응급의학과 230-8280	조정열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동익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김수익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김호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상경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찬희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노윤채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박홍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백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 ~ 일	월 ~ 일
이비인후과 230-1480	천경두	귀(중이염, 난청)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월, 화, 금	화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수, 목	월, 수, 금

진료과	전문의	전문 진료 분야	오전	오후
재활의학과 230-1460	윤용순	뇌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렬증후군, 족부클리닉	화, 금	월, 목
	윤석봉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수, 금	월, 화, 수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화, 수, 목, 금	월, 화
	최줄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월, 화, 목	수, 목, 금
	유기삐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 / 연하재활, 근전도	월, 수, 금	화, 수, 금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월, 목	월, 수, 목, 금
	이정후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의치 / 보조기	화, 수, 목	화, 목, 금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최말례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화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	월, 화, 목	화, 수
	나의현	중독 정신장애, 청소년정신장애,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사회공포증), 기분장애(우울), 불면증	화, 목, 금	월, 화, 목
	김철응	조현병, 조기정신병, 수면장애, 기립성뇌장애, 기분장애	월, 수, 목	월, 화, 수
	김 용	기분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치매, 수면장애	월, 화, 수, 금	월, 화, 목, 금
	한명일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질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월, 화, 목	목
정형외과 230-1430	정의섭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월, 수	월, 수, 목
	신충식	견 · 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월, 목	월, 목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화, 금	화,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목	화, 목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박신승	견 · 주관절(어깨, 팔꿈치, 관절)	수, 금	화, 수, 금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경검학검사	월 ~ 금	월 ~ 금
	최인선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접합성검사, 진단면역	월 ~ 금	월 ~ 금
	배태원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 / 요경검, 검사정보학	월 ~ 금	월 ~ 금
치 과 230-1540	송윤관	보철(틀니,브릿지,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신경치료,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최현미	보철(틀니,브릿지,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신경치료,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종덕	보철(틀니,브릿지,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신경치료,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피부과 230-1490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화, 목, 금	-
	송지섭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수	월 ~ 금
	이아진	일반 피부질환(알레르기, 건선, 여드름), 피부미용(Fraxel, CO2, Nd yag, Toning laser)	월, 수, 목	-
핵의학과 230-8780	김민우	근골격핵의학, 종양핵의학, 심장핵의학, 신경계핵의학, 소화기핵의학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 ~ 금	월 ~ 금
	문운하	근골격핵의학, 종양핵의학, 심장핵의학, 신경계핵의학, 소화기핵의학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 ~ 금	월 ~ 금
심장혈관외과 230-1340	최종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천성 심장병	화, 금	-
	박성식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 대동맥, 선천성 심장병	월, 목	-
흉부외과 230-1400	서언호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월, 수, 금	월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5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 230. 8114 | www.jesushospital.com

ISSN 2799-8274